

41

룻의 믿음

룻기 1 ~ 4장



사사 시대 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은 각각 모압 여자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했습니다. 모압 땅이 있는 지 10년 후에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났습니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터이니 너희도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처음에는 두 며느리 모두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했으나 오르바는 떠나고 룻만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오르바를 따라 돌아가라.”

“어머니!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서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6)



41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룻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습니다. 그 밭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것이었는데 보아스는 열심히 이삭을 줍는 룻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종에게 물었습니다.



보아스 **저 소녀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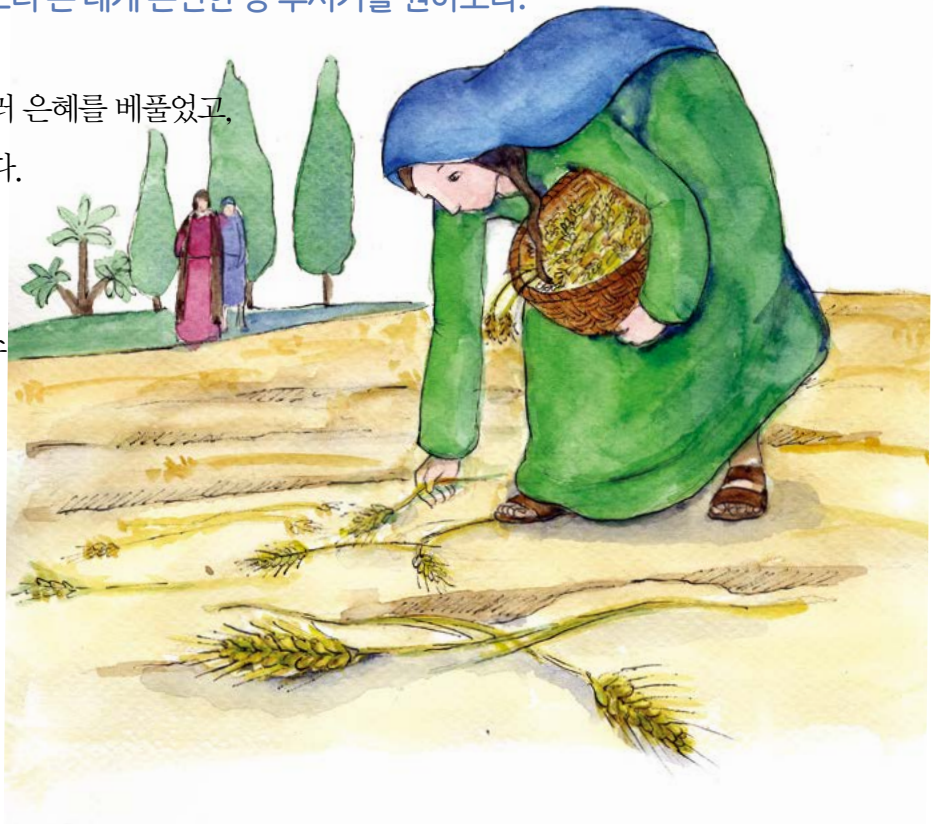
종 **예,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같이 모압 땅에서 온 룻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아스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에게 여러 은혜를 베풀었고,
그 후 보아스는 룻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도께서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도 룯처럼

룯은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오미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은 어린이 전도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날은 저와 가장 친한 경미의 생일이예요.
경미가 꼭 오라고 했는데, 생일잔치에 가야 할지 전도
집회에 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1.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2. 그것을 선택했을 때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3.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는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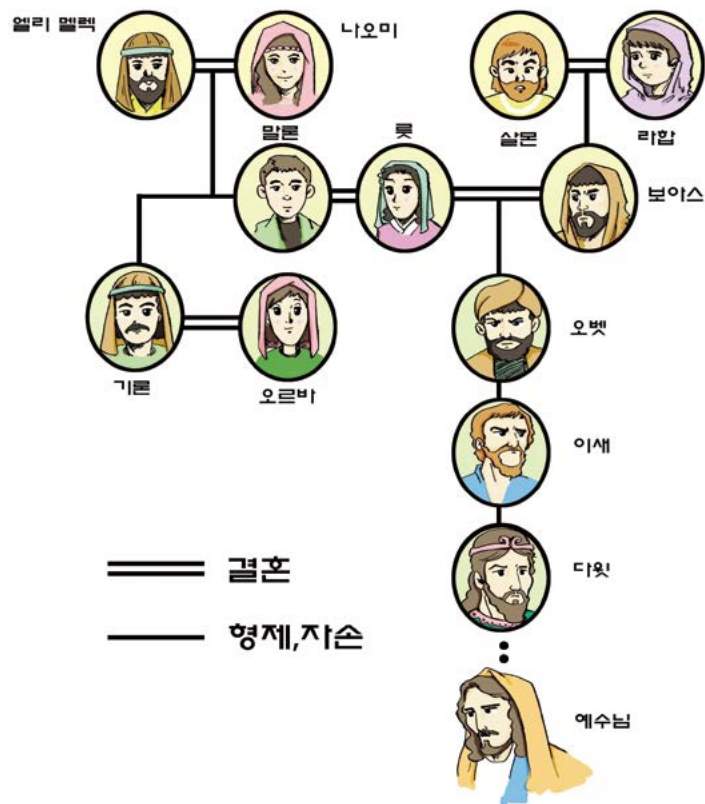
우리가 하고 싶거나 좋아하는 일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오미를 따르듯 우리도 하나님을 따를 때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알아볼까요

살몬의 아내인 라합과 보아스의 아내인 룯은 모두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난

선생님
난